KOICA
한국국제협력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ogether KOICA

2021 Vol.5

30th Anniversary



30 years of KOICA
그린 · 디지털ODA · 통합적 접근으로 글로벌 선도적 개발협력기관으로의 도약을 꿈꾸다
손혁상 이사장 인터뷰

KOICA Live
코이카, 청년과 함께하다

KOICA People
코이카 영프로페셔널 (YP) 활동기

코이카가 드디어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1991년 4월 1일 연건동에서 첫 울음을 터트리던 코이카가 이제는
전 세계 120여 개국과 협력하며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이카 3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30년의 역사입니다. 코이카의 탄생 자체가 대한민국이
해외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변화를 증명합니다. 코이카의 30년을 되돌아보면 결국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협력단 창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본부 및 해외사무소 임직원,
해외봉사단 등 개발협력 현장 활동가 및 국내외 개발협력 파트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과 상생의 개발협력으로 인류공동 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코이카는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gether
KOICA
2021 Vol. 5

<Together KOICA>는 코이카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소식지입니다.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코이카가 전하는 전 세계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발행인	손혁상
등록일자	2021년 12월 9일
발간등록번호	홍보 2021-03-202
발행일	2021년 12월 9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전화	1588-0434
팩스	031-740-0260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한국국제협력단 홍보실
제작·인쇄	문화공감

코이카 뉴스레터 <Together KOICA>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는 대한민국의 대외 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 간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합니다.







02 PROLOGUE

30 years of KOICA

08 INTERVIEW
그린·디지털ODA·통합적 접근으로 글로벌 선도적 개발협력기관으로의 도약을 꿈꾸다
손혁상 이사장 인터뷰

14 HISTORY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코이카가 걸어온 30년을 살펴보다

18 한눈에 보는 KOICA
코이카 창립 30년 역사를 따라 기록해 온 '코이카 소식지'

20 MESSAGE
코이카 창립 30주년 축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4 KOICA CIAT
코이카 해외 연수생 3인을 만나다

28 우리는 KOICA입니다
코이카와 함께 성장하는 서른 살 동갑내기들을 만나다

KOICA Live

32 PEACE
캄보디아 뚜울슬랭 대학살 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36 PEOPLE
코이카, 청년과 함께하다

40 PROSPERITY
캄보디아 팜슈가 비즈니스 가치사슬 구축 사업

42 PLANET
파라과이의 첫 유기농 매장 ECO AGRO

44 PARTNERSHIP
코이카가 협력국과 함께 나아가는 방법

KOICA People

48 BEAUTIFUL KOICA
코이카 영프로페셔널 (YP) 활동기

52 PROUD KOICA
KOICA 석사학위연수생 짐바브웨 동창회원 Kenneth Mahuni 씨 아마르티아 센 상(Amartya Sen Prize) 수상

56 WITH KOICA
코이카 글로벌협력의사 에세이 출간

58 EPILOGUE
KOICA 창립 30주년 기념 영상
서른, 청년 코이카의 이야기를 담다



KOICA's 30th Anniversary

30년 역사의 터전 위에
새로운 30년,
새로운 KOICA를!





서른의 코이카,

그린·디지털ODA·통합적 접근으로 글로벌 선도적 개발협력기관으로의 도약을 꿈꾸다

코이카(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올해 4월 1일로 서른이 되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보면, 1990년대는 우리나라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었던 시점이다. 공자(孔子)는 논어(論語) 위정(爲政)편에서 서른 살을 '이립(而立)'이라 칭하며, 인생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로 꼽았다. 코이카 손혁상 이사장을 만나 올해 서른을 맞이한 코이카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물었다.

글 편집실 **사진** 원상희

Q. 코이카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코이카는 어떤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이사장 손혁상입니다. 코이카는 대한민국 무상원조를 전담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의 개발협력 대표기관입니다. 1년에 약 9,722억 원의 예산으로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 빈곤 감소, 인권 및 성평등 실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0여 개 국과 협력하며, ▲연수생 초청,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뿐만 아니라 ▲국별협력(프로젝트), ▲시민사회협력, ▲글로벌 연수,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 협력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보면, 1990년대는 우리나라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됐던 시점입니다. 그 발걸음의 시작에 코이카 창립이 있었으며, 대한민국 개발협력사 주요 마일스톤을 함께하며 성장해온 코이카의 역사는 대한민국 ODA 30년사와 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코이카는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얼마나 성장했나요?

코이카가 출범한 1991년은 한국이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큰 변곡점이 된 해입니다. 1991년 4월 코이카 설립 후 한국은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ODA가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던 시기인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2000년 DAC(개발원조위원회) 리스트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ODA에 대한 성과가 인정돼 한국이 선진공여기관들의 모임인 OECD DAC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소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코이카의 무상원조 활동의 성과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설립 당시 코이카 사업비는 174억 원이었고 해외 사무소는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 등 6곳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창립 30주년을 맞은 2021년 현재, 코이카의 예산은 9,722억 원으로 50배 이상 늘었고 해외 사무소도 44개국에서 운영해 7배 증가했습니다. 코이카가 직접하는 양자(兩者)사업과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多者)사업을 모두 합치면 대상 국가는 120개국에 육박합니다. 또한 창립 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봉사단 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대상 국가는 7개국(37명)에서 53개국(4,91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왼쪽) 코로나 19 워크스루 진단부스 기증행사에서 캄보디아 보건부 장관이 한국이 기증한 워크스루 진단부스를 시연해 보이고 있다.
(오른쪽) 코이카가 제공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필리핀 의료진

2020년 기준, 한국의 ODA 규모는 25.2억 불로 DAC 회원국(총 29개국) 가운데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이 DAC에 가입한 이래 지난 10년간 연평균 ODA 증가율이 11.9%로 회원국 1위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ODA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셨다는 의미여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코이카 인력은 설립 당시 201명에서 현재 563명으로 3배를 겨우 못 미치는 정도여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국제사회에서 ODA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여국의 입장에서, ODA를 통해 얻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올해 채택된 '제3차 국제개발협력종합기본계획(2021~2025년)'에서는 개발협력을 통한 '상생의 국익' 실현을 명시했습니다. 이것이 갖는 각별한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국, 그리고 공여국이 상호 이익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 것입니다. 하지만 '상생의 국익'이라는 표현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ODA를 단순히 주고받기(Give&Take), 또는 단기적인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ODA를 통해 공여국은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여 국제적인 신뢰와 연대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협력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분	1991년	2020년	
프로젝트 사업	8개	312개(잠정)	▲ 39배
예산	174억원	9722억원(2021년)	▲ 55.9배
해외사무소	6개 사무소	44개 사무소	▲ 7.3배
인력	201명	563명	▲ 2.8배

설립년도 대비 항목별 코이카의 성장

Q.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코이카가 국제사회에 기여한 점과 앞으로의 지원 계획은 어떠십니까?

한국은 오랫동안 보건 ODA에 노하우를 쌓아왔고 신속지원이 가능한 체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코이카는 'ABC 프로그램'[1]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116개국을 대상으로 총 1.5억 달러가 넘는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대륙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코로나19 지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원국 정부, ▲재외공관, ▲해외 사무소, ▲개발협력 파트너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고 계획을 완비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라는 전에 없던 감염병이 나타난 것은 ▲생태계 파괴, ▲인수(人獸-인간과 짐승)간 전염, ▲기후 위기 등의 문제와 따로 떼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 즉 '그린 ODA'와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이카가 '기후감염병위기대응실'을 신설한 것도 이러한 접근법의 하나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위기는 그것대로 잘 대처하면서 앞으로도 재발될 팬데믹의 근본 원인을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ODA, 그린 ODA를 잘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Q.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이카와 ODA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국민들에게 ODA를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은 OECD DAC 회원국 가운데 지난 10년간 ODA 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국가입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 여건이나 국내 상황을 도외시하고 ODA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힘든 중에도 면면히 ODA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 코이카가 지난 30년간 괄목 성장한 것은 모두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19년 국무조정실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개도국에 ODA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사람이 62.0%, 이 중 "정부의 ODA를 지지한다"는 사람은 81.3%에 달합니다. 우리 국민 5명 중 3명은 ODA를 알고 대다수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이 ODA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과거 우리도 원조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42.5%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32.3%)",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공존에 기여(12.0%)",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나 외교에 도움(7.3%)" 순입니다. 이처럼 ODA의

1) 코로나 19 발생 직후 'ABC프로그램(개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을 수립, 해당 내용의 대부분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개발협력전략 'ODA Korea: Building TRUST'와 연계되며, 보건·사회경제적 측면의 지원을 아우르고 있다.



코이카 국민 서포터즈 위코2기 온라인 발대식 선서



라오스 군 불발탄 제거팀이 지뢰 불발탄 조사 및 제거 활동을 하는 모습

당위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ODA 사업에 지금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이해가 늘어나면 지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코이카는 2건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를 받아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코이카 해외 ODA 기업진출 지원센터(한국 기업들이 해외 ODA 사업과 개발협력 현장에 경쟁력을 갖고 진출하도록 조력), ▲코이카 연수생과 중소기업 만남의 장(코이카의 연수를 받고 되돌아간 개도국 인재들과 한국 중소기업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해 윈-윈 도모) 2건이 국민들의 아이디어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국민 서포터즈에 해당하는 'WeKO(We are KOICA)'를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이는 전국 16세 이상 남녀 120명이 코이카 사업을 경험하고 SNS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하는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경험과 참여가 늘어나면 ODA에 대한 지지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코이카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소개와, 그 성과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제3기 ODA 중점협력국' 27개국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신남방/신북방 정책 대상국들은 주요한 코이카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신남방 ODA는 5대 중점 프로그램인 디지털, 고등교육, 평화농촌개발, 도시개발,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3기 중점협력국 중 신남방 대상국가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총 7개국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ODA 사업 예산은 1,359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2.5% 증가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프로그램'입니다. 메콩지역의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지금까지 축구장 36,000여 개 면적에 해당하는 7천8백만 평 지역에서 지뢰 및 불발탄을 탐지·제거했고, 피해지역 주민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위험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단순한 메콩지역 폭발물의 물리적인 제거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피해자 재활 및 치료, 피해 마을 대상 농지소득 향상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북방 대상국가는 총 5개국으로,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과 우크라이나가 해당됩니다. 신북방 ODA는 지난해 4대 프로그램으로 선정한 상호 연결성 확장, 인적자원 개발 및 창업, 보건의료협력,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북방 ODA 사업의 일환으로, 코이카는 신북방 협력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 보급한 최신 진단 장비와 코이카가 양성한 현지 역학조사관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즈벡 감염병 감염률은 이웃국가의 18%에 그치는 등 감염병 확산 저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우즈벡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것은 한국에서 역량을 전수 받은 결과"라며 공식 감사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북방 고등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같은 신북방 협력대상국의 개발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 발전을 견인할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코이카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며 가까운 곳에서 코이카와 함께했습니다. 이사장으로 취임 후 코이카가 국내 및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며,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2021년 역점과제로 코이카 3대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바로 ▲그린뉴딜 ODA, ▲디지털 ODA, 그리고 ▲사업의 통합적 접근입니다.

그린뉴딜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요소이며, 감염병 발생의 근본 원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이카는 그린뉴딜 ODA를 추진,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발굴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기후변화와 환경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의 2배로 늘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그리고 전 세계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는 올해 3월 '디지털 ODA 사업추진전략(2021-2025)'을 수립했는데요. 해당 전략은 ▲디지털 주류화 확대, ▲디지털 핵심사업 추진, ▲생태계 조성 및 추진기반 조성을 3대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력국에서 디지털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신규 프로젝트사업의 디지털 주류화율을 2023년까지 80% 수준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30년간 사업형태, 분야, 협력대상국이 비약적으로 확대된 코이카는 이제 그 규모에 맞는 사업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사업 진행이 아닌 더 통합된, 전략과 계획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코이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개별 '프로젝트'입니다. 각 사업의 부서나 지역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프로젝트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공통의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들을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려는 시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국 개발 문제 해결'이 핵심 테마가 되는 성과 기반 사업체계를 만들어가면서 정부정책과의 정합성, 개별 사업의 효과성도 높여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모를 위해서는 직원·조직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코이카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인사제도를 합리화해 투명하고 개방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열의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이카가 우즈베키스탄에 구축한 국립아동병원 내 교육훈련센터에서 의료진 및 관계자들이 교육훈련 설비 시범 교육을 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코이카가 걸어온 30년을 살펴보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법'이 공포되며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2021년 현재, 코이카는 어느새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지난 30년 동안 코이카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코이카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와 우리나라 ODA의 성장 과정을 함께 되새겨본다.

1991



1991. 04. 01.
한국국제협력단 창립
1991년 1월 14일에 『한국국제협력단법』이, 3월 18일에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1991년 4월 1일 한국국제협력단이 정식 발족했다. 창립 당시 조직은 본부, 산하기관, 6개 해외사무소로 이뤄졌다. 해외사무소는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 등지에 6개 사무소를 운영했다.

1991. 08. 30.
한국 청년해외봉사단 제2기 단원 파견
한국 청년해외봉사단은 KOICA 설립 이전 1990년 8월 최초 파견되었으며, 코이카는 설립 이후 교육부로부터 한국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을 인수하여 제2기 단원을 파견했다.



1993 - 1995

1993. 07. 19. ~ 20.
세계원조기관장 회의(Tidewater) 참가

1994. 01. 07.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제4715호)



1995. 03. 04.
지역사무소 확대
현장 중심의 수행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무소를 기능 중심에서 지역 중심 조직으로 개편했다. 기존 6개소였던 사무소 중 호주, 아르헨티나 등의 사무소를 폐쇄하고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베트남,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피지, 필리핀 사무소를 개소해 총 10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했다.

1995. 03. 18.
민간원조단체(NGO) 지원사업 개시
코이카는 1995년 '민간협력과'를 신설하고 NGO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최초의 민관협력사업을 시작했다.

1995. 11. 01.
전자결재시스템(MIPOS) 도입에 따른 업무전산화 구축

1996 - 1999

1996. 03. 19. ~ 04. 01.
UNIDO와 협정 체결 및 선진 원조 기관(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 캐나다)과의 원조정책협의 개최

1997. 01.
국제협력사업 초·중·고교 교과서 수록

1998. 05.19.
제9기 해외봉사단 파견 기념
KBS 열린 음악회 개최(05.24 방영)



1998. 09. 01.
코이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1999. 03. 10.
국제협력연수센터 개원식
코이카는 협력대상국 연수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종합교육시설인 국제협력연수센터를 개원했다.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에 위치한 센터는 현재 글로벌인재 교육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협력연수센터는 2008년 코이카가 성남시로 이전함에 따라 본부 옆에 신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0 - 2005

2000. 07. 20.
협력단 지원, 베트남 증권거래소 개장

2002. 11. 05.
아프가니스탄 지원사업 시작
2000년대 초 아프가니스탄은 오랜 전쟁과 내전으로 기간산업 대부분이 파괴되고 탈레반 정권 하에서 정치·경제·사회 제도가 크게 와해되었다. 코이카는 아프가니스탄의 전후 복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02년 '아프가니스탄 지원 특별사업을 위한 추진방침'을 수립하고 아프가니스탄 해외사무소를 신설했다.

2005. 02.
재난복구지원본부 설립
코이카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후 재건복구 지원을 위해 2004년 아프가니스탄 지원사업 특별반을 확대 개편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지원본부'를 설치하고, 2005년에는 '재난복구 지원본부'로 재편했다.

2006 - 2007

2006. 09. 30.
제1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 개최

2006. 11.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 수립(2007~2009)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제시를 위해 코이카는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을 수립했다. △협력국의 빈곤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지원,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익 증진, △대협력대상국 우호협력 관계 증진,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원조를 4대 전략 목표로 선정하고 전략적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07. 03. 07.
제1회 ODA 서울 국제회의 개최



2007. 09. 11.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 도입

국제질병퇴치기금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 KOREA

2008 - 2009

2008. 05. 19.
신청사 이전



2009. 05. 07.
대한민국 정부파견 해외봉사단 단일(통합) 브랜드 'World Friends Korea' 출범

2009. 09. 29.
<지구촌에 새긴 KOICA의 발자국> 발간



2009. 11. 25.
한국, OECD/DAC 가입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2010

2010. 01. 25.
아이티 지진 코이카 긴급구호대 출국

2010. 03. 15.
코이카 ODA교육원 개원
개발협력 교육을 통해 대국민 ODA 인지도를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ODA교육원을 설립했다.



2010. 06. 29.
코이카 지구촌체험관 개관
협력대상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지구촌 이웃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성남에 지구촌체험관을 개관했다.

2012 | 2013

2012. 08. 13.
개발협력연대(DAK) 출범

2013. 03. 04.
한국 정부파견 해외봉사단 1만 명 돌파



2013. 03. 04.
다자협력전문가(KMCO, KOICA Multilateral Cooperation Officer) 발대식

2013. 11. 13.
서아프리카 에볼라 대응 지원

2014 | 2015

2014. 02. 03.
'코이카 3대 혁신' 선언식

2015. 08. 14.
월드프렌즈 영월교육원 개원



2015. 08. 14.
창의적 가치창출프로그램(CTS) 론칭

2015. 10.
ODA 통합정보시스템 오픈



2017 | 2018

2017. 09. 01.
국내 유일 ODA도서관 재개관



2018. 02. 02.
코이카 10대 혁신과제 발표
코이카는 혁신위원회를 구성,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성평등 등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 '개발협력 분절화 극복 및 개발효과성 제고', '상호존중 및 책무성을 기반으로 모든 파트너와의 협업 강화' 등 총 10개의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2019

2019. 02. 19.
자회사 ㈜코웍스 출범

KOWORKS (주) 코 웍 스

2019. 05. 17.
코이카 신남방 ODA 이행계획 비전 선포식 개최

2019. 09. 20.
제1회 코이카 서포터즈 '위코(WeKO)' 발대식 개최
위코(WeKO)는 '국민 모두가 코이카(We=KOICA)'라는 뜻으로 대학생과 시민들로 구성된 코이카 국민 홍보대사를 말한다. 코이카와 ODA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청년들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경력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WeKO

2019. 12. 31.
종합안전상황실 개소



2020

2020. 03. 04.
코이카 연수센터 코로나19 접촉자 임시생활시설로 개방
코이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주거 환경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의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임시시설로 연수센터를 개방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경증환자들을 위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개방했다.

2020. 06. 01.
2019 공공데이터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0. 12. 09.
코이카 웹진,
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2021

2021. 04. 01.
창립 30주년

30TH ANNIVERS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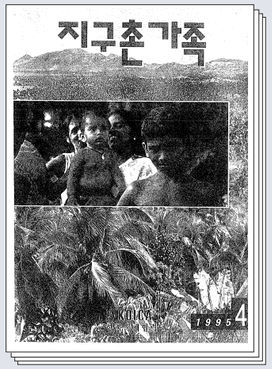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지구촌 가족>에서 <Together KOICA>까지…

코이카 창립 30주년, 그 30년 역사를 따라 기록해 온 '코이카 소식지'

한 톨의 씨앗이 울창한 숲이 되었다. 처음에는 불과 6개국의 해외사무소로 시작했던 코이카가 이제는 전 세계 44개 사무소에서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다. 코이카 소식지는 그간 코이카의 발자국을 좇아온 일기장이자 증인이었다. 지난 30년간 코이카와 함께한 소식지의 변화상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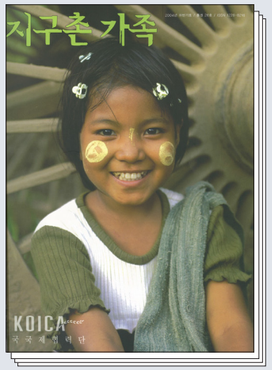
글 편집실



1990년대

코이카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소식지 <지구촌 가족>, 미래를 꿰뚫어본 통찰력

1991년 4월 설립된 코이카는 1990년대 내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쓰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이 된 것도 놀라운데, 1995년 국제협력요원파견 및 민간원조단체(NGO)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1996년에는 OECD 29번째 회원국 가입까지 해냈기 때문이다. 코이카의 활약과 함께 1994년 11월 창간한 <지구촌 가족>은 약 40P 분량으로 칼럼, 논단, 활동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칼럼·논단에는 예리한 통찰력이 녹아 있으며, 논문에 필적할 정도의 분석은 마치 학술지를 연상케 했다. 현장 활동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기도 했으며, 직원들의 심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담은 코너들도 흥미로웠다.



2000년대

ODA 양적 성장의 시대, 일반 독자와의 소통에 집중하다

이 시기에는 2001년 9·11테러 사건이나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발생 등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OD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코이카의 역할도 함께 커지고 있었다. 이에 <지구촌 가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학술적인 칼럼 코너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변화를 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전과 달리 일반 독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주제 선정은 물론 디자인도 개선해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2005년에는 <지구촌 가족> 웹진을 만들어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코이카와 독자를 잇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겸하게 되었다.

2010년~2018년

DAC 가입과 함께 질적 성장의 시대로

기적이 마침내 전설이 됐다.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최초 전환하여 모범 사례로 꼽혀온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일 드디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으로, 이와 함께 코이카 소식지 역시 변환기를 맞이했다. ODA 관련 소식 보도를 대폭 확대해 세계 소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호활동에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더불어 독자와의 소통에도 힘쓰며 독자 참여형 소식지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독자와 코이카를 직접 연결하는 웹진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되며 웹진의 비중이 강화된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2019~현재

협력과 소통을 위한 새로운 이름, <Together KOICA>

2019년은 그간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해였다. 우리나라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UNOPS) 통합 집행이사회 의장국에 연이어 선출되었고, 시민사회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앞장서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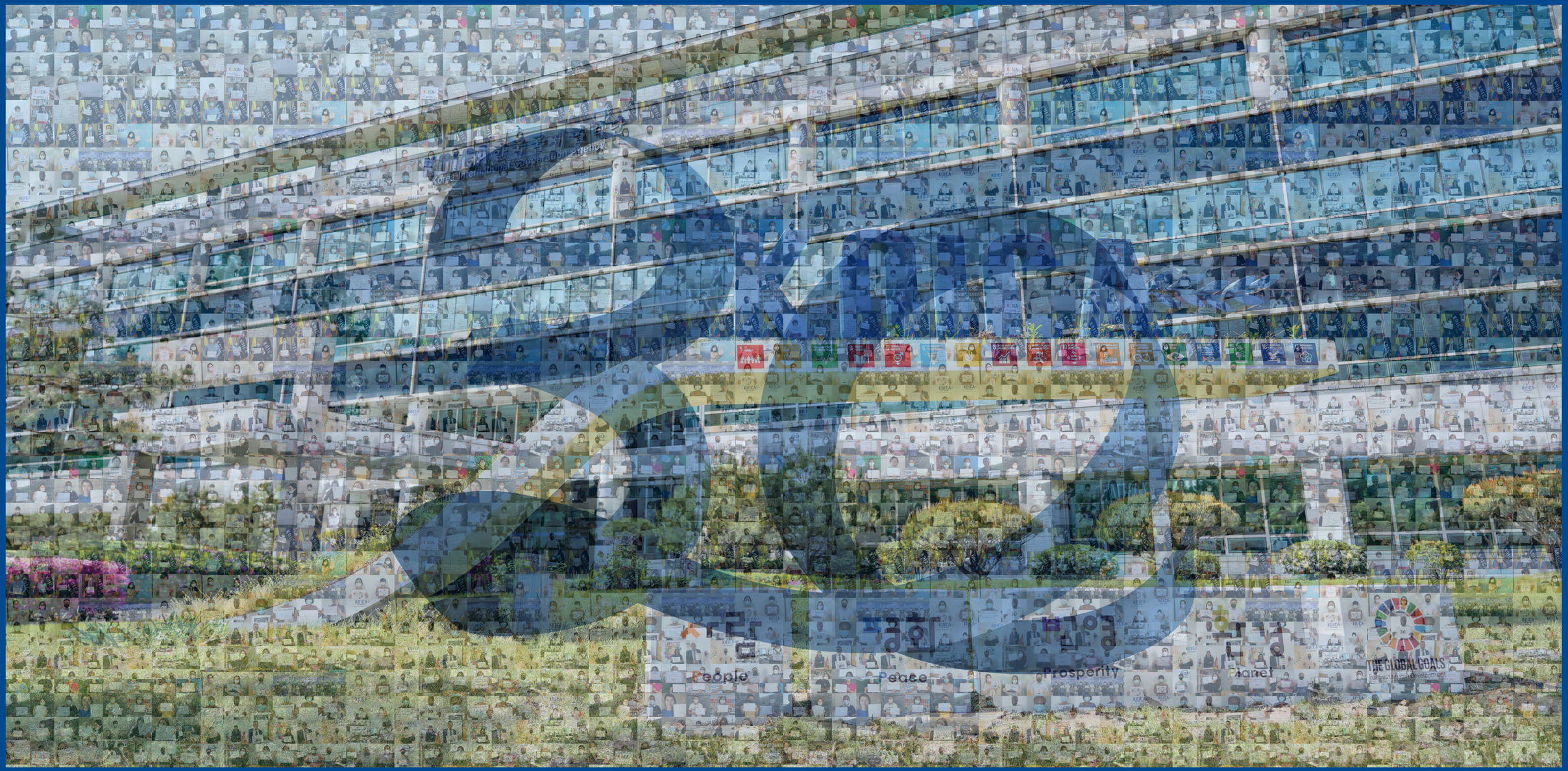
이와 함께 코이카 소식지 역시 크게 변화했다. 먼저, 소식지의 창간부터 유지해온 <지구촌 가족>이라는 이름을 국제사회를 무대로 활약하는 코이카의 역할에 맞춰 <Together KOICA>로 바꾸었다. 또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소식지를 온라인으로 옮겨와 본격적인 웹진으로서의 새 단장에 나섰다.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한 웹진은 시각적 요소가 중요한 웹 기반 매체의 특성에 맞게 사진과 이미지의 비중을 크게 높였다. 기사 내용도 달라졌다. 이전과 비교하여 사업 규모가 커진 '양적 향상'은 물론, 해당 국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사업 시행이라는 '질적 향상'을 이룬 점이 소식지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일반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국민의 ODA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가볍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SNS의 확산에 맞춰 활동 영역을 넓힌 것도 이전과 차별화된 점이다. 웹진 <Together KOICA>와 함께 코이카는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코이카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코이카 창립 30주년 축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그리고 여러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코이카 임직원과,
항상 코이카를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서 코이카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준 축하 메시지가
세계 각국에서 한가득 도착했다!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으로 힘차게 나아갈 코이카의 창립 30주년을 기대한다.



윤*희 (ekgml3740)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기관으로 활약해온 코이카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 나갈 코이카의 밝은 앞날도 응원합니다!

민*우 (minseowoo1229)
코이카의 30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국제협력증진에 큰 이바지하는 코이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이카 파이팅!!!

이*희 (nkhj98)
30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건실한 청년의 나이가 되었네요.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코이카가 되길 기원합니다.

김*아 (cimina0)
코이카 3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제 발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더욱 사랑받는 코이카가 되길 응원합니다!♡

이*규 (dltnsrb79)
코이카의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개별협력 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송*정 (sande325)
코이카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활약하는 코이카를 보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며 희망찬 내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도*현 (dokebi99)
코이카가 30주년으로 이제 당당한 성인으로 성장 발전했군요. 그동안의 노고와 발전에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코이카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도록 응원합니다. 코이카여 영원하라.

신*섭 (sts0926a)
코이카의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고 함께 응원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힘을 실어드리고 축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박*웅 (bryan12)
코이카 창립 30주년 축하드려요!!! 배우고 성장하는 단계를 지나 이제 ODA분야를 선도하는 코이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하 (eunha7142)
코이카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30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 온 코이카!! 30주년이 아니라 60년, 90년, 100년 쭉쭉 성장하여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멋진 코이카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림 (caookoi88)
KOICA 창립 30주년 축하드립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최일선에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국국제협력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 많이 보여주세요.

이*영 (shania11)
1991년 4월 1일 설립한 코이카가 드디어 30주년을 맞이했네요~^^ 30년 동안 정말 국제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헌신과 노력으로 많은 인류가 더 번영하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쭉 성장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jjangk79)
벌써 창립 30주년이나 되었다니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서 더욱더 멋진 활약을 응원하며, 코이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항상 밝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코이카 파이팅!

변*윤 (byonjeeyoon27)
최빈국으로 원조를 받다 이제는 원조 공여국으로! 세계를 아우르는 코이카의 선한 영향력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쭉쭉쭉 뻗어나가길!

이*정 (sujung0117)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에서 더욱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파이팅!!

신*희 (mesomh22)
코이카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역사가 점점 깊어지네요^^ 앞으로도 발전하고 사랑받는 코이카가 되기를 바라며 50주년, 100주년 쭉쭉 오래 함께해요♡



조*진 (mylove0009)
코이카의 30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제 문화교류와 그로 인한 국가 이미지 상승에 기여한 공로가 아주 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양*아 (someday0)
코이카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0년이란 긴 세월동안 코이카가 개발도상국가의 발전과 지구촌의 평화에 기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가는 것을 함께 지켜볼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코이카의 활동과 사업을 응원할게요!!

최*혁 (ranchi76)
코이카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발협력기관으로서 코이카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가며 힘차게 달려가실 길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코이카 아자아자 파이팅~!!



이*기 (alll45)
코이카와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 코이카도! 저도 늘 건강히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내길 응원해봅니다!

이*인 (mini3195)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코이카의 30살을 축하합니다^^ 와~~~~! 코이카의 찐팬으로 격하게 축하드려요ㅎ 언제나 사회적 가치실현과 국가경제발전과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인 코이카를 늘 응원하며 항상 기대합니다~!

"고마워요 KOICA!" 고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코이카 해외 연수생 3인을 만나다

코이카(KOICA)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다.
바로 현지에서 코이카 석사 학위 연수생으로 선발돼 한국으로 온 연수생들이다. 열정과 애정으로 한국 생활을 즐기며, 고국으로 돌아가 배운 모든 것을 적용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그들을 만나보았다.

글 이경희 **사진** 안호성·이성원





전 세계 협력국에 코이카의 선한 영향력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하키마 캘라프 Hakima Khellaf

국적: 알제리 **소속/직책:** 알제리 행정부 공무원 **연수기관:** 성균관대학교 **전공:** 공공행정

Q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알제리에서 왔어요. 2014년 대학을 졸업하고 알제리 행정부에서 인사 담당자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학교에서 공공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공공행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올해 1월에 왔어요. 원래 작년 6월에 올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시간을 투자해서 기초부터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어요.

Q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KOICA-성균관대학교 지방행정 석사학위과정'입니다. 코이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에 많은 기회를 줍니다. 나는 코이카 장학생으로 미래의 성장을 위한 지식, 능력, 스킬은 물론, 공공행정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공공행정과 지역정부의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일하고 싶어요. 여기서 배운 것을 중앙정부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코이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선 한국에는 좋은 행정 시스템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알제리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알제리와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여겼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알제리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지만 부족한 게 있다면 리더들이에요. 국가가 번영하기 위한 좋은 자원들이 많은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리더가 부족하기에 여기서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Q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얻은 학문적인 성과는 무엇이었나요?

과제를 하면서 얻은 성과가 컸어요. 교수님이 각자 자신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찾아내서 솔루션을 제시하라는 과제를 내줄 때가 많아서, 본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지금 인사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HR 문제를 학술자료를 통해 해결했고 본국에 가면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전부 취합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문서를 쓰고 싶어요.

Q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무엇인가요?

모든 순간이 다 좋았습니다. 한국 친구가 명절에 혼자 있는 저에게 설날을 같이 보내자고 초대해 주셔서 한복도 입어보고 설음식도 먹었어요. 그동안 고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롭고 슬펐는데 한국의 가족 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환영해줘서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Q 알제리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여기서 배운 경험과 지식을 본국에 적용하고 동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또 기회가 되면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본국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과 공공분야, 경제 분야에서도 많은 협력을 하고 싶어요.

Q 코이카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 인사 부탁합니다.

코이카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코이카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을 에콰도르 공공정책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파올라 이달고 Paola Hidalgo

국적: 에콰도르 **소속/직책:** 에콰도르 금융기관 커뮤니케이션부 직원
연수기관: 성균관대학교 **전공:** 공공행정

Q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왔어요. 본국에서는 공무원으로 금융기관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의 금융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금융시스템을 제공하고 알려주는 역할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은행 앱도 쓰고 바로 근처에 있는 은행에도 갈 수 있지만 에콰도르에서는 대도시에 살지 않는 한 사람들의 은행 접근성이 좋지 못해요. 외곽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금융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게 목표였고 더 나아가서 은행 애플리케이션, ATM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Q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 역시 'KOICA-성균관대학교 지방행정 석사학위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이카 프로그램은 공무원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공공행정 분야의 공무원들은 반드시 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정책들이 왜 실패했는지, 다른 국가에서는 어떤 이유로 실패했는지 그리고 지금 에콰도르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코이카의 프로그램은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데 학계 관련 지식도 쉽게 배울 수 있고, 에콰도르와 교육 수준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공공부문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을 이해하는 데 지식이나 경험들을 많이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Q 현재 무엇을 공부하고 있나요?

공공행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공공정책을 통해 문제를 이행하고 해결하는지 배우고 있는데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교수님, 동료들과 제 논문 주제인 '자살' 관련 사안을 논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살이라는 게 사회통념상 금기시되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주제잖아요. 에콰도르에서도 자살 문제를 정책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Q 한국과 에콰도르를 잇는 가교 역할에 대한 욕심이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리서치 단계이긴 한데 본국으로 돌아가면 공공행정에 대한 제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싶고 관련 당국에도 정책들을 제안하고 싶어요. 또 에콰도르에 한국 기업들이 많은데 공공프로그램을 에콰도르 고교생들에게 시행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한국에 오기 전과 오고 난 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나요?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1950년대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너무 달라요. 문화나 교육 수준, 기술적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지 너무 놀랍습니다. 저에게는 그 사실이 매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런 모습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을 좋은 쪽으로 발전시켰습니다.

Q 코이카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 인사 부탁합니다.

코이카의 이 프로그램이 여러 협력국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특히 발전과 변화의 기반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너무 좋습니다. 이는 전쟁터에서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이카가 지난 30년간 해온 걸 앞으로도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통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교육과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친자 그마친 Nachinja Gmachin

국적: 가나 **소속/직책:** 가나 도로교통부 공무원 **연수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전공: 도시및지역개발정책

Q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가나에서 지난 2월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가나에서는 도로건설부에서 계획관(planning officer)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이행하고 계획하는 공무원이에요. 또 코이카같은 국제기구나 타 국가에서 가나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그들과 파트너십을 어떻게 맺을지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Q 가나에서 코이카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이카가 정부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가나는 자원은 풍부한데 그에 반해 아웃풋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에서는 인재를 트레이닝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한국의 코이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경제, 정치 등을 배워 가나에 적용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코이카 프로그램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참여했나요?

코이카를 알게 되면서 콘텐츠나 학업 과정을 보니 저에게 더 특화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역량을 더 개발할 수 있고 가나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고민 끝에 결국 코이카에 지원했어요. 코이카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치를 두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Q 지금까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성취는 일단 한국에 온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가나에서 온라인 수업을 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 대면수업을 시작한 뒤로는 다양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공공투자관리는 매우 중요한데, 저는 자금이나 투자를 제대로 조율·관리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 공공투자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Q 한국에서 지내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바뀐 부분이 있나요?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엄청난 발전상이었어요. 책에서 보고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가나와 한국은 독립시기가 비슷했기 때문에 내심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천연자원은 우리가 훨씬 더 풍부한데 너무나 다른 발전상에 정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Q 오는 12월에 귀국하는데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돌아간 뒤 여기서 얻은 지식을 가나에 적용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가능하면 한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방법도 찾고 싶고, 저의 지식을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요. 한국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공부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역할은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는 배운 걸 실천에 꼭 옮겨보고 싶어요. 최종적으로 가나와 한국, 코이카와의 협업이 좀 더 진전되길 바랍니다.

Q 코이카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 인사 부탁합니다.

코이카가 다양한 기관이나 나라에 계속해서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이카가 개발협력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관으로서 이러한 경험을 끊임없이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너 서른? 나도 서른!

코이카와 함께 성장하는 서른 살 동갑내기들을 만나다

국내 유일의 국제개별협력기구 '코이카(KOICA)'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기초공사를 다지는 나이인 10대와 20대를 거쳐 안정기에 접어든 30살이 된 코이카와 함께
서른이라는 나이를 맞은 세 명의 코이카인을 만나 슬기로운 30대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Part 1 서른아, 반가워!

Q 오늘 '서른'이라는 주제로 모였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일 2019년 12월 31일에 입사했고 현재 국별프로그램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태일 전임입니다.

전지현 2018년에 입사했고 현재 동아프리카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4년차이지만 연말에 입사해 총 3년째 근무 중인 전지현 전임입니다.

김수진 2019년 3월 31일에 입사한 3년차 사원으로, 중동중앙아시아실에서 알제리, 튀니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진 전임입니다.

Q 세 사람이 모두 91년생으로 만 나이가 30살이다. 20대 시절에는 서른이라는 나이가 어떻게 보였나요?

김태일 30대가 되면 모든 게 명확해지고 가는 길이 명료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30대가 되니까 나이만 먹었지 고민에 변화는 없더라고요.

전지현 20대 말엔 30대가 되는 걸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반대로 30대가 되면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됐어요.

김수진 저는 반대로 28살이 됐을 때 서른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미 30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스스로에게 답을 줘야한다는 압박감이 들었거든요.

Q 세 사람 모두 20대 후반에 입사했다. 입사 후 서른을 맞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김태일 29살 막바지였던 12월 31일에 입사하면서 바로 30대를 맞았는데, 그러다보니 입사를 준비하던 전과는 다르게 앞으로는 어떻게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기를 것인지 생각한다는 점이 20대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지현 저는 28살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입사 후 2년 정도를 지나 30대를 맞았습니다. 스스로도 그때보다 지금 내 역량이 발전했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더 의지가 생기고 그걸 이뤄나갈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김수진 서른이 됐을 때가 입사 2년차였어요. 남들이 보기엔 어른이라고 하는 서른이지만 실은 아직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인 신입의 위치였죠. 나이만 서른이고 회사에서는 아직 어려서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했어요.

Q 30대인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낀 적이 있나요?

김태일 이전에는 재정적인 자립이 어려웠는데 30살에 코이카에 들어오면서 '이제 네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구나'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전지현 저는 반대로 주변인이나 가족들이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시각으로 봐주지 않아서 부담이 덜했어요. 그래서 30대가 되는 게 즐거웠고 오히려 독립적으로 살게 되는 데 도움이 됐죠. 내가 할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어요.

김수진 집에서 막내라 딱히 시선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코이카도 전반적으로 입사 연령이 높아서 함께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편이라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철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압박을 주고 싶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꼰대'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0대가 되는 게 즐거웠고 오히려
독립적으로 살게 되는 데 도움이 됐죠.
내가 할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어요."

Q 현재 가장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뭔가요?

김태일 최근 트렌드가 금융소득이나 재테크이다 보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이건 현실인 것 같아요.

전지현 저도 비슷하게 보금자리, 주식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아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요.

김수진 저는 카메룬으로 발령이 나서 두 달 후면 떠나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 정리해야 할 일이 많아요. 많은 결정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지만 '카메룬에 다녀온 뒤의 내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Q 미래는 120세 시대라고 한다. 그렇게 따지면 30살은 너무 어린 나이다. 30년이 지난 60살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태일 30년간의 고민 끝에 지금의 방향이 정해졌고, 이후 30년동안에는 전문성이나 역량이 키워졌을 테니 그것들을 쉽게 풀어내어 전달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지현 저는 코이카 입사 전과 지금의 꿈이 일치해요. 나중에 교수가 되는 게 최종적인 꿈이거든요. 여기 코이카에서 쌓은 학문적 지식, 그리고 프로젝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국제개발협력 역량 강화 방안을 알리고 싶습니다.

김수진 직업을 떠나 주변인들에게 건강상 문제로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60대가 되어도 사람들이 저와 있을 때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60대가 되어도 사람들이 저와 있을 때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Q 업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최근 가장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태일 30대에 들어서니까 살이 점점 찌고 있어요. 나잇살? 그런 거 안 믿었는데 정말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퇴근 후에 웨이트 트레이닝, 조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전지현 영상 찍는 걸 좋아해서 최근에 유튜브 브이로그를 시작했어요. 제 일상을 기록하고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제일 관심도가 높아요.

김수진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웃음), 최근에 아이돌그룹 SF9의 '로운'이라는 멤버를 '덕질'하고 있어요. 원래 아이돌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인생이 즐거워졌어요(웃음).



Part 2 코이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Q 코이카에는 어떤 배경으로 입사하게 됐나요?

전지현 어릴 때부터 외교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서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을 대표하는 기관인 코이카에 도전해보자는 생각을 했죠. 1년 정도 준비했는데 석사 때 개발협력 문서들을 많이 본 게 도움이 됐어요.

김태일 저도 석사를 하면서 국제정치 논문을 썼는데요. 권위주의 체제에 관한 내용에 접근하게 되면서 NGO에서 일을 하게 됐고, 아카데미와 현장 실무에 대해 고민하다가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 코이카에 입사했습니다.

김수진 대학 시절부터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다녀보며 국제개발협력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어요. 기회가 닿아서 코이카 연구정보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죠. 근무환경이 좋고 만족스러운 면이 많아 코이카 입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 밖에서만 보던 코이카에 실제로 들어와 보니 어떤 것 같나요?

전지현 생각보다 젊은 조직이라는 점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재밌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데, 일과 삶의 균형도 맞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돼 있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일 밖에서 코이카를 보면 전체 집단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내부에서는 마이크로한 부분들을 겪게 되잖아요. 내가 하는 업무가 모두 수렴이 돼서 코이카라는 집단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김수진 업무를 하다 보면 얼마 전 칼럼에서 본 단어처럼 '분노중독'이 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보람이 한없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직장이 이런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10대 때의 도전의식과 20대 때의 고민이 응집된 30대가 되어서 앞으로 더욱 전문성을 키우고 그 역량을 세계로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입사 후 선배들의 "나 때는 말이야~"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김태일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경험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김수진 지금은 결재를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이전에는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서 재무회계실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일할 때가 있었구나, 정말 신기했죠.

전지현 저도 겪은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신입사원이 문서작성을 해서 올리면 자간, 줄간, 간격, 띄어쓰기 등에 대해 굉장히 엄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양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더 유연해졌달까요?

Q 거꾸로 이제는 20대 후배들이 생겼다. 스스로 꼰대가 됐던 경험도 있었을까요?

전지현 후배들과 많이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디 살아요?" "남자(여자)친구 있어요?" 같은 사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놀라서 '내가 꼰대인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김태일 20대 직원과 유튜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요즘 20대들이 쓰는 유행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이제 어린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하는 세대가 됐구나 싶었죠(웃음).

김수진 선후배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중년의 여성 상사분이 당연히 기혼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5살 어린 후배 직원은 오히려 그 상사분이 기혼이라는 것에 놀라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대는 결혼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웠어요.

Q 코이카가 30주년을 맞았다. 축하 메시지를 전해달해주세요

전지현 명확하지 않았던 규정과 시행착오 속에서 47개국에 마련된 사무소를 오가며 고생한 코이카에게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태일 10대 때의 도전의식과 20대 때의 고민이 응집된 30대가 되어서 앞으로 더욱 전문성을 키우고 그 역량을 세계로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진 30대인 저에게 바라는 것과 같아요. 관례에 갇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언제나 푸릇푸릇 젊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킬링필드> 이제는 온라인으로 만난다

캄보디아 뚜울슬랭 대학살 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적힌 글이다.
아픈 역사는 눈을 돌릴 게 아니라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뚜울슬랭 박물관은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다.
최근 코이카와 유네스코가 이곳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이제는 온라인에서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글 이현수





사진 출처: 캄보디아 뚜울슬랭 대학살 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archives.tuolsleng.gov.kh)



킬링필드로 사라진 200만 명

톰 필립스는 <인간의 흑역사>(2019)에서 “인간들의 역사란 멀리서 바라보면, 제국들이 흥했다가 망하고 서로 학살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라고 인류사를 요약했다. 그의 말대로 폭력의 상흔은 세계 곳곳에 뚜렷하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독일 슈타지 박물관, 중국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나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베트남 타이거 감옥이 그 예다. 캄보디아의 뚜울슬랭 박물관 역시 잔인한 고문과 처형의 역사를 보존한 곳 중 하나다.

원인은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었다. 1928년생으로 유복한 집에서 태어난 폴 포트(Pol Pot)는 프랑스 유학 중 마오쩌둥 주의에 기초한 원시 공산제사회를 세우기로 결심, 캄보디아에 귀국했다. 때마침 캄보디아는 닉슨의 무작위 농촌 폭격과 학살 사건에 분노한 상태였다. 그는 민심을 등에 업고 친미정권이었던 론놀(Lon Nol)을 축출, 대세가 된다.

집권 후 농민 천국을 건설할 것을 천명한 폴 포트의 크메르루주(Khmer Rouge: 붉은 크메르, 크메르는 캄보디아 주요 민족 그룹을 뜻한다.) 정권은 본격적으로 캄보디아 개조에 나섰다. 화폐, 무역, 도시, 가족을 없애고 도시 사람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시켜 집단 농장에서 일하게 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반대세력 제거에도 칼을 빼들었다. 문제는 이분법적 사고였다.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극단적 인식은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는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는 실행력과 맞물려 대규모 살육으로 치달았다. 나중에는 질문에 답하는 게 늦어서,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책을 똑바로 읽을 수 있어서, 심지어 안경을 쓰고 있어서 등의 황당한 이유로 잡아가 고문하고 학살했다. 그가 집권한 3년 7개월 동안, 무려 캄보디아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00만 명의 숫자가 희생을 당했다.

> 캄보디아의 뚜울슬랭 박물관 역시 잔인한 고문과 처형의 역사를 보존한 곳 중 하나다.

이와 같은 학살의 실태는 1984년 ‘킬링필드(The Killing Fields)’라는 영화가 나오며 세계를 발칵 뒤집어놓았고, 이후 ‘킬링필드’는 크메르루주의 대학살과 대학살 현장을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됐다.

과거의 상처를 보존한 뚜올슬랭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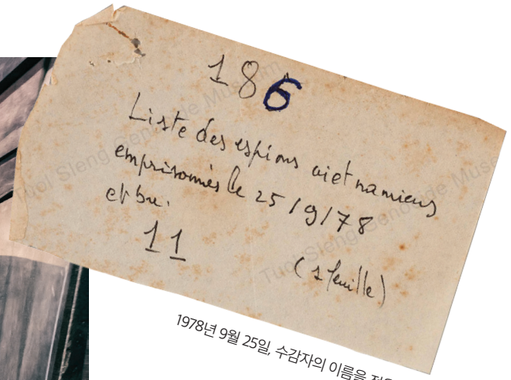
킬링필드의 대표적 장소 중 하나가 바로 뚜올슬랭(Tuol Sleng)이다. 원래는 여자고등학교 건물이었지만, 크메르루주는 'S-21'이라는 비밀감옥으로 개조해 이용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노동자·농민·기업가·예술가·운동선수·엔지니어·교사 등 1만 2천 명이 이유도 모른 채 이곳에 끌려와 무자비한 고문을 당했고, 'CIA·KGB의 첩자였다'라는 허위자백 후 처형됐다. 이 과정에서 온갖 잔인한 방식의 고문이 동원됐다.

크메르루주의 광기는 현재까지도 캄보디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단절이다. 대학살은 일반 국민도 포함했지만 주로 지식계층에 집중되었다. 지식인들이 사라졌으니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가 없어 지식 재생산의 맥이 끊겼다. 의사들도 지식인으로 분류되어 학살에서 예외가 아니었으니, 의료시스템도 증발했다. 캄보디아는 2012년 기준 의사 숫자가 2천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 상황이 열악하다.

크메르루주 몰락 이후 캄보디아는 뚜올슬랭 감옥을 문화예술부 내 왕립 부속 공공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광기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였다. 이곳을 방문하면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철제 침대, 쇠고랑, 고문 도구, 교수대, 벽돌을 촘촘히 쌓아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게 만든 독방들이 보존되어 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찍힌 피해자들의 사진도 수없이 걸려 있다. 현재 뚜올슬랭은 한 해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역사의 교훈을 되짚으며 다시는 이처럼 끔찍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하는 위령소로 자리잡았다.

"대학살은 주로 지식계층에 집중되었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가 없어 지식 재생산의 맥이 끊겼다."





1978년 9월 25일, 수감자의 이름을 적은 기록

뚜올슬랭 박물관의 외관(아래)과 내부 전경.(오른쪽 위)
뚜올슬랭 박물관은 당시의 아픈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당시 뚜올슬랭 감옥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평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오픈

그러나 최근 문제가 생겼다. 캄보디아의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에 보존 자료의 훼손 위험성이 높아진 것. 여기에 접근성 개선도 필요했다. 수도 프놈펜에 가야만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데다 정부에서 정보 공개를 통제하여, 정작 당사자인 캄보디아 일반 국민들은 뚜올슬랭의 원본 자료를 보기 어려웠다.

이에 코이카가 나섰다. 코이카는 2014년부터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유네스코)와 협력하여 뚜올슬랭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지난 1월 29일 '캄보디아 뚜올슬랭 대학살 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archives.tuolsleng.gov.kh)로 정식 오픈했다. 여기에는 수감자 3,616명의 정보 및 사진, 자백서 2만 9,401장 및 당시 수첩 등 문서 자료 6만 3,732건이 담겼다. 영어는 물론 캄보디아 현지어인 크메르어로 제작하여 캄보디아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그 외 실물 자료 총 74만 5,494점은 빛과 습기에 바래지 않도록 국제 기준에 맞춰 보존처리했다. 또한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및 박물관 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 대학살 관련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진행하여, 보존 사업을 원활히 운용함은 물론 캄보디아의 평화와 사회통합을 고민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George Santayana)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뚜올슬랭 아카이브의 구축으로 온라인상에서 캄보디아의 지난 역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내전과 대학살로 고통 받은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 세대의 역사 및 평화 교육에 활용하여, 캄보디아가 과거를 극복하고 기적의 역사를 쓰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캄보디아가 과거를 극복하고
기적의 역사를 쓰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청년들이 국제개발협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코이카, **청년과 함께하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법정기념일로 제정할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청년문제. 국제개발협력의 최전선에 있는 코이카 역시 이에 관심을 기울이며, 청년들의 국제협력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코이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ODA' 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글 사진 편집실

국제개발협력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코이카의 '청년 ODA' 사업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봉사사업, 개발협력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연 4,200여 명의 청년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해외 사업 현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코이카는 청년의 해외경험 축적, 청년 창업기업 육성, 창업 초기기업 해외진출, 청년 정책 참여와 권리보장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1,316억 원, 코이카 협력국 청년 타깃 ODA 사업까지 포함하면 3,000억 원 규모의 체계적인 '청년 ODA'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코이카의 대표적인 사업인 해외봉사 및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연 6,263명의 청년이 ODA 사업현장에서 해외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들이 귀국한 후에는 ODA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취·창업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청년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귀국 봉사단원의 등록금 지원은 물론, 코이카 사업에 참여하는 파트너 기관과 국제기구는 청년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육성된 코이카 글로벌 인재의 개발협력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글로벌 인재가 개발협력 분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지닌 '리턴프로그램'은 국내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코이카형 글로컬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ODA분야 청년창업을 육성해 코이카 글로벌 인재의 사회적 경제 분야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협력 및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지원 제도다.

또한, 창업 초기 기업들이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를 ODA화하고,

> 코이카는 청년의 해외경험 축적, 청년 창업기업 육성, 창업 초기 기업 해외진출, 청년 정책 참여와 권리보장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1,316억 원, 코이카 협력국 청년 타깃 ODA 사업까지 포함하면 3,000억 원 규모의 체계적인 '청년 ODA' 사업을 진행했다

> 앞으로 코이카는 청년 ODA 사업에 대한 정의와 포트폴리오를 정비해 나가며 코이카의 청년 시그니처 사업 형성에 대한 밑그림을 탄탄히 그려나갈 계획이다.





안정화 단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업력 10년 내 기업을 위주로 사회적연대경제 프로그램, 혁신적기술 프로그램,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모사업 추진 계획도 마련했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으로 청년,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주요한 솔루션이라고 판단하고, 궁극적으로 ODA 사업화를 돕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누마 코리아는 태블릿 기반 아동교육 앱 개발 사업을 코이카와 함께 지원한 바 있고, 작년 테슬라 글로벌러닝 엔터프라이즈에 최종 우승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하는 과제 역시 아직 남아있다.

청년정책책임관 제도와 함께 청년들의 ODA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선정하여 청년들의 참여기반을 조성해나가고, 더 나아가 청년 이사제 도입 역시 검토 중이다.

청년 ODA, 코이카가 그리는 앞으로의 계획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 코이카는 앞으로 '청년과 함께하는 ODA T/F'를 발족하고 청년기본법상 코이카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본법상 청년개발협력(Youth Development)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전략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청년정책책임관 제도와 함께 청년들의 ODA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선정하여 참여기반을 조성 예정이며, 더 나아가 청년 이사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코이카는 청년 ODA 사업에 대한 정의와 포트폴리오를 정비해 나가며 코이카의 청년 시그니처 사업 형성에 대한 밑그림을 탄탄히 그려나갈 계획이다.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의 경험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뛰어든 청년들의 이야기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기본법안 제4장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에 따르면 국가는 청년들의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코이카는 청년이 참여하고, 청년과 함께 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충현 피지 수바 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임현정 더브릿지 매니저, 유동주 케이오에이 대표가 참여해 모두 공감할만한 의견을 나눴다.



MINI INTERVIEW

민주시민으로서 청년이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일



사회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원인과 현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지역, 국경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시민은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공감능력과 해결하려는 실천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주 케이오에이(K.O.A) 대표

청년기본법 8대 주요시책



창업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창업을 통해서 배우는 인생 경험은 사회에서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창업에 실패했을 때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지원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정 더브릿지 매니저

청년의 국제협력분야 활동 기회를 보장하려면?



코이카와 정부는 청년들에게 국경 너머 일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경험이 국내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충현 피지 수바 종합병원 의사

나무에서 따낸 보석, 마침내 국제적 인정을 받다!

캄보디아 팜슈가 비즈니스 가치사슬 구축 사업

대만 경제부에서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 사회혁신 파트너십 어워드. 지난 4월 11일 열린 이 대회에서 캄보디아 기업 헤세드(Hesed)가 수상했다. 코이카의 지원 아래 꽃을 피우기 시작해 사업 활성화에 성공, 마침내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팜슈가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글 이현수 **사진**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 제공



캄보디아에서 발견한 설탕 대체품

설탕은 산업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감미료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962년에는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이 4.8g이었지만, 2013년에는 72.1g으로 무려 15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1980년대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성인 당뇨병의 원인으로 설탕을 지목하기도 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팀도 15년간의 추적 연구 끝에 설탕과 심장질환과의 연관성을 밝혀낸 바 있다.

이에 설탕을 대체할 건강한 천연 감미료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캄보디아에서 발견한 '팜슈가'다. 팜슈가는 야자수의 일종인 팔미라 팜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한 비정제당이다. 일반 설탕이나 벌꿀보다 낮은 당 지수, 꿀의 22배로 알려진 폴리페놀 함유량, 비타민, 엽산, 셀레늄 등 이로운 영양소가 다량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과 시간, 노동력이 투입되는 팜슈가 생산의 특성상 기존 캄보디아의 전통 생산 방식만으로는 생산량을 늘리고 상품 가치를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어 팜슈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1



2



3

1. 캄보디아에 설립한 팜슈가 가공센터
2. 캄보디아에서 생산한 팜슈가
3. 아시아 태평양 사회혁신 파트너십 어워드(APSIP) 시상식 현장

캄보디아 팜슈가 비즈니스, 사업 활로는 물론 현지 일자리까지

이에 캄보디아 현지 기업인 '헤세드(Hesed)'와 한국의 '㈜꽃피는 아침마을'이 코이카(KOICA)와 함께 '캄보디아 팜슈가 비즈니스 가치사슬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코이카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이하 IBS)으로,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현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헤세드는 코이카 IBS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캄퐁츠낭, 캄퐁스프 2개의 지역에서 농민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품질 개선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 현대화된 가공장을 설립했다. 또한 시제품 연구를 통한 다양한 파생 상품을 출시해 브랜드를 확립시켰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외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여 유통경로를 확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 앞장섰다.

이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다. 우선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팜슈가 수출량은 기존에 30톤 수준에 불과했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째에는 80톤으로 개선되었다. 더불어 GI 인증과 SGS 인증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였으며, 이를 통한 안정적인 유통·판매망 확보는 취약계층 소득 증가는 물론 현지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아시아 태평양 사회혁신 파트너십 어워드에서 인정받다

최근 이 사업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지난 4월 11일 대만 경제부에서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 사회혁신 파트너십 어워드(APSIPA)에서 13개국 7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코이카와 함께 '캄보디아 팜슈가 비즈니스 가치사슬 구축 사업'을 일구어 온 헤세드가 포용적 사업(Inclusive Business) 분야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안은 것이다. APSIPA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를 핵심 가치로 하여 생물·환경 지속가능성, 포용적 비즈니스, 사회적 번영 분야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생 기업 및 사회혁신 파트너십을 발굴하고자 마련된 공모전이다. 이번 수상으로 헤세드는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회 혁신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 혁신 분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가장 권위 있는 행사인 '아태사회혁신서밋(Asia Pacific Social Innovation Summit)'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국내와 캄보디아 현지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그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코이카는 현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파라과이의 첫 유기농 매장

ECO AGRO

개발도상국에서 빈곤 타파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운동 프로젝트.
파라과이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유기농 상품을 파라과이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유통처가 코이카(KOICA)의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마련되었고,
지난 6월에 준공식이 열렸다. 파라과이 최초의 국내 유기농 생산 인증 오프라인 매장 'ECO AGRO'를 만나보자.

글 이현수 **사진** 코이카 파라과이 사무소 제공

세계가 인정한 지역사회개발운동,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의 구호가 현실이 됐다. 1970년 초 시행한 농촌 현대화 사업 새마을 운동은 식민 및 전쟁의 역사 때문에 팽배했던 패배의식과 무기력, 소외감을 극복할 힘과 자신감을 농민들에게 불어넣어 주었다. 농촌마을의 적극적인 참여는 농가 소득증대, 주택 개량, 농업 경쟁력 향상, 지역 간 불균형 완화 등 농촌부흥 및 사회통합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이 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7위의 무역대국[1], 1인당 GDP 3만 달러 선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과에 세계가 주목했으며, 새마을운동은 국제연합(UN) 등의 국제기구에서 성공적인 지역사회개발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국내 활동을 넘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도 활약하기 시작했다.

1) https://www.tomtom.com/en_gb/traffic-index/browser-not-supported



고객에게 인정받고 있는 ECO AGRO의 유기농 제품들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한 SMU APRO 커미티 유기농 매장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는 새마을운동 프로젝트(Saemaul Undong, 이하 SMU)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혜자들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지역공동체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갈 골격을 마련한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신흥국 지원과 차별화된 방식이다. 그 중 하나가 코이카의 '파라과이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 사업(2015-2022)'이다. 이는 한국의 농촌 개발 모델을 파라과이의 사회·경제·문화적 맥락에 맞게 적용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

코이카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1차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곧바로 파라과이 농목축부 및 국제 NGO인 Fundacion Capital과 함께 새마을운동 2차 시범 사업을 진행, 총 12개 커미티(위원회)의 사업을 돕고 있다.

최근 반가운 뉴스가 들렸다. 지난 6월 10일 코이카가 파라과이의 산로렌소 지역에 위치한 APRO 커미티 유기농 매장의 준공식을 개최한 것.

파라과이 농업 잠재력 발휘와 유기농 산업 진흥을 위한 ECO AGRO, 드디어 첫 발을 떼다

지난 6월에 문을 연 APRO 커미티의 유기농 상점 ECO AGRO는 파라과이 전국의 250곳의 생산자(농민)와 긴밀히 협조하여, 유기농으로 재배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 잼, 소스, 설탕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정식으로 유기농 생산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취급한다.

APRO 커미티는 농목축부 산하 기관인 국가종자식물품질 관리원(SENAVE)과 코이카의 협력 하에 유기농 생산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구축, 프로모션에 대한 노력을 거듭한 끝에 참여 보증제도(PSG: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생산자와 소비자, 기타 관계자들이 직접 친환경농업의 표준을 정하고 검증절차를 수립할 뿐 아니라 검증에 참여하는 인증제도)를 통한 국내 유기농 생산 인증을 취득했다.

ECO AGRO는 파라과이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데다 수도 아순시온과도 가까운 산로렌소에 위치하고 있어,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도 받는다. 웹사이트(ecoagro.org.py)에서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주문하면 수요일에 배송할 정도로 빠른 배송 속도가 인상적이다.

정부의 정식 인증을 받아 산로렌소에 오프라인 매장을 낸 APRO 커미티. 이는 파라과이의 내 유기농 상품 생산 활성화의 신호탄이자, 정부가 인정하는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유기농 제품을 소비자가 만나게 된 소중한 기회다. 코이카는 ECO AGRO의 성장을 돕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파라과이 가족농들의 지속 가능한 수익창출을 돕고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꾸준함으로 결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이카가 협력국과 함께 나아가는 방법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긴 터널을 걷는 기분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이카(KOICA)는 협력국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함께 나누고 꾸준하게 격려하면서 협력국과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다.

정리 편집실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2021년 2월, 코이카는 과테말라의 웨웨떼낭고주 모자보건 전문병원에 현지 교민 기업이 제작한 방역물품 마스크 2만 장과 방역복 5천 벌을 지원했다. 웨웨떼낭고 지역은 5세 이하 영·유아 영양실조 및 사망률이 과테말라 내에서 가장 높고, 멕시코 접경에 위치해 외부인에 의한 감염병 확산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지난 2018년 코이카의 지원으로 설립한 웨웨떼낭고주 모자보건 전문병원은 연간 약 4만 5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안전한 출산을 전담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한 방역물품은 과테말라 한국 교민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이를 통해 현지 일자리 창출과 과테말라 내 자체적 방역물품 생산시스템 확보로 방역 능력 향상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 코이카(KOICA)는 함께 나누고 꾸준하게 격려하면서 협력국과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다.





코로나19와 범죄에 맞서는 코이카!

코이카는 지난 3월 23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 위치한 경찰청 범죄 수사국(DIRCRI PNP) 본부에 의료용 장갑 7천 개, 방호복 6백 개, N95 마스크 8백 개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기증했다. 해당 지원은 페루 경찰 인력의 보호를 위해 추진되었다.

페루 경찰청의 범죄수사국은 살인, 마약 등 각종 범죄에 대응하는 부처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접촉하는 일이 잦아 경찰 확진의 72%가 이곳 범죄수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페루 경찰청은 '앞으로도 코이카와 경찰청의 협력관계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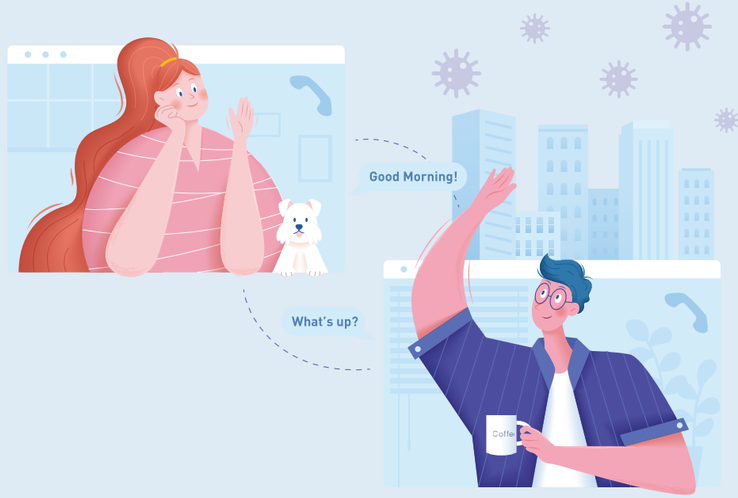


코로나19 장기화, 이제는 치료 역량을 강화합니다

코이카는 작년 7월부터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역량이 낮은 현지 상황을 고려해 '에티오피아 코로나19 포괄적 긴급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코이카는 코로나19 대응 물품 21종을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UNOPS)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현지에 먼저 도착한 산소마스크 10,000개, 방호복 2,000개, 산소주입관 20,000개 등 코로나19 대응 물품 14종은 에티오피아 보건부 산하 의약 공급처를 통해 에티오피아 거점 대응병원 중심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코이카는 에티오피아의 전반적인 코로나19 진단 능력과 치료 능력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전 분야의 포괄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코이카는 올해 우즈베키스탄에서 5백만 불 규모의 포괄적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12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국립 위생역학처 등 7개 기관에 4백만 불 규모의 의료기자재 총 97종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보건분야에서 보건·방역 정책결정자 대상 초청 연수와 감염병 진단검사실 정도 관리체계 및 국가 질병감시체계 구축, 코로나19 관련 연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며, 사회 경제적 위기 대응 분야에서는 코이카 우즈벡 직업훈련원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코로나19 극복! 당신에게 맞는 언어로 감염병 대응 강의를 청취하세요

코이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형 감염병 대응 마스터 클래스' 온라인 교육을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지원하며 감염병 대응 지식의 글로벌 공유와 확산을 추진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코이카가 협업해 진행하는 해당 교육은 감염병 관리와 코로나19 대응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내/외국인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보건복지배움인(https://edu.kohi.or.kr)을 통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온라인강의를 들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바꾼
코이카 해외사무소의 일상!

코이카 영프로페셔널(YP) 활동기

갑자기 불어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협력국에 위치한 코이카의 해외사무소 역시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역수칙을 지키며 모두가 안전하게 근무하기 위해 팬데믹 이전과 똑같이 일할 수는 없는 법. 해외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코이카 영프로페셔널(YP)의 일상을 통해 코로나19로 달라진 코이카의 모습을 살펴보고, 코이카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글 강나은 사진 YP 제공

대한민국 ODA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영프로페셔널

'코이카 영프로페셔널(YP)'은 ODA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 NGO단체와 우수한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청년에게는 개발협력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형성에 도움을 주고, 사업수행기관에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개발협력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YP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집과 선발 과정은 물론, 해외 파견 이후의 업무 환경까지 모두 달라졌다. 올해 YP로 선발되어 각 국의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경훈, 한수민, 최재영 YP의 일상을 통해 각 나라의 해외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과, 코로나19로 달라진 코이카의 업무환경에 대해 살펴보자.

> '코이카 영프로페셔널(YP)'은 ODA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 NGO단체와 우수한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개발협력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렵게 얻은 소중한 1년을 값지게



동티모르 사무소 한수민 YP

지난 해 '도미니카 공화국 10대 임신방지 프로젝트 봉사단'으로 활동하던 중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한수민 YP는 귀국 이후 YP에 도전, 처음부터 끝까지 원격으로 이루어진 선발과정을 거쳐 동티모르로 떠났다.
코이카 동티모르 사무소는 전원 사무소 출근하는 대신 매일 아침 출근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근무했으나, 최근 동티모르의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져 재택근무로 전환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회의 및 행사가 늘어나고, 해외로의 파견이 어려운 인력을 대신해 현지에 있는 직원이 사업지를 방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사무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이에 한수민 YP는 온라인 행사 영상 촬영 지원, 자료 수집, 현지 출장 등 해외사무소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얻은 소중한 기회인만큼, 1년 동안 많이 배우고 이 기회를 발판 삼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낯선 상황에서의 위기를 기회로!



알제리 사무소 차경훈 YP

작년 코이카 국제개발전문봉사단으로 활동하던 차경훈 YP는 코로나19로 인해 급히 귀국한 뒤 코이카 21기 YP에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YP 선발 과정 단계에서부터 실감할 수 있었다.
화상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출국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현지어를 미리 학습하며 파견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현재 차경훈 YP는 사업지 현장점검 출장 지원업무 외에도 연수사업, 홍보, 행정업무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알제리 사무소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만큼 YP로서 배울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넓어 만족하고 있다고.

"알제리 사무소에는 소장님, 코디네이터님, 그리고 저. 이렇게 총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배우며 가족처럼 정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긍정에너지



콜롬비아 사무소 최재영 YP

콜롬비아는 코이카 해외사무소가 설치된 국가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여전히 일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사무소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1~2명이 출근을 해 직원들 간에도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있다.
최재영 YP는 콜롬비아 사무소에서 현장사업 진행을 위한 모니터링, E-Volunteering 단원 활동 기관 방문, 봉사단원 현장사업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였고, 자료 조사와 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은 현지 대학생 서포터즈 'KOCO'의 활동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KOCO와 함께 온라인 세미나, 라이브, 전국단위 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편한 점도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빨리 나아져서 더욱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KOICA 석사학위연수생 짐바브웨 동창회원 Kenneth Mahuni 씨

국제경제학회(IEA) 주관 아마르티아 센 상(Amartya Sen Prize) 수상

최근 코이카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KOICA CIAT 석사학위연수 졸업생 짐바브웨 동창회원 케네스 마후니(Kenneth Mahuni) 씨가
국제경제학회(IEA)에서 주관하는 '아마르티아 센 상(Amartya Sen Prize)'을 수상한 것이다.
커다란 성과를 이룬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남지연 **사진 제공** 케네스 마후니



아마르티아 센 상을 수상한 케네스 마후니 씨

세계적인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의 정신을 이어받아

아마르티아 센 상은 '국제경제학회(IEA,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상으로, 경제학계의 '마더 테레사'라 불리는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의 이름을 따 지난해 새롭게 제정한 상이다.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1933~)은 인도 출생으로, 경제적 문제에서 윤리와 철학을 복원하고,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후생경제학(복지경제학)에 기여한 공로로 1998년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계의 '마더 테레사'라 불리는 인물이다.

그리고 최근 국제경제학회(IEA)에서 아마르티아 센의 이름을 따 '아마르티아 센 상'을 제정했다. 아마르티아 센 상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미만의 국가에 거주하는 40세 미만의 학자가 집필한 논문 중 개발경제학, 복지경제학, 도덕철학 등을 다룬 우수한 논문과 에세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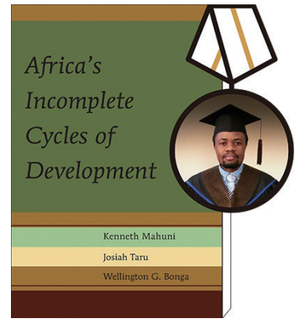
아마르티아 센 상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케네스 마후니 씨의 논문 <Climate Change 'Proofing' Sub Saharan African Women, A Step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은 짐바브웨 뿐 아니라 아프리카,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의 황폐화와 이에 따른 여성의 소외를 다루고 있다.

기후변화를 포함, 커다란 재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소외된 이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저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여성'에 주목하고, 기후 변화에 직면한 아프리카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이번 논문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다

아마르티아 센 상을 수상한 케네스 마후니 씨는 현재 짐바브웨 산업통상부에서 경제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KOICA CIAT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2016년까지 16개월간

최근 도서
<Africa's Incomplete Cycle of Development>를
펴낸 케네스 마후니 씨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사진 출처: IEA 홈페이지





한국에서의 연수 당시 모습

한국의 아주대학교에서 석사학위과정(경제 및 산업 정책)을 수료했다. 이후 짐바브웨로 돌아가 신산업 발전 모니터링, 수입 대체 및 수출 주도 산업화 촉진, 산업 및 상업 부문에의 성장 가치 창출 등 경제 전문가로서 짐바브웨의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마후니 씨는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에서의 연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이후 자신의 학문적 능력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 실제 그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아프리카 에세이 공모전, 아주대학교 공모전 등에서 수상했으며, 2018년에는 코이카 글로벌연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마후니 씨는 최근 <Africa's Incomplete Cycle of Development>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Josiah Taru, Wellington G. Bonga와 함께 공동집필한 저서로, 광범위한 아프리카 대륙의 개발 문제에 대한 탐구를 담고 있다.

책은 아프리카가 다른 나라, 다른 대륙에 비해 (특히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있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다루며 아프리카가 처한 지금의 현실과, 아프리카의 개발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호 작용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마후니 씨는 KOICA CIAT 연수 당시 이 책을 구상했다고 한다.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된 생각은 아주대학교에서 진행된 수업과 스터디 투어, 세미나 등의 과정을 거치며 커다란 단서가 되었고, 그에게 큰 영감과 도움을 준 것이다. 출간 이후 마후니 씨는 현재 두 번째 책을 집필하고 있으며, 집필이 끝나는 대로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길고 흥미진진한 여정의 시작

마후니 씨에게 '아마르티아 센 상'을 수상한데 대한 소감을 묻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이 상이 가지는 명예나 영광보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경제학자들과의 교류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을 전했다.

"이번 '아마르티아 센 상' 수상은 저에게 매우 의미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 전경

있고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의 수상을 통해 저는 대륙의 구석구석에서 온 500명 이상의 경제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앞으로 높은 목표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게 있어 이 상은 제가 열정적으로 끌어안았던 길고 흥미진진한 학문적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 나갈 길고도 긴 학문의 여정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이를 '흥미진진'하다고 표현한 그의 말에는 큰 기대감이 묻어난다.

그 흥미로운 여행의 시작을 함께 한 코이카, 그는 코이카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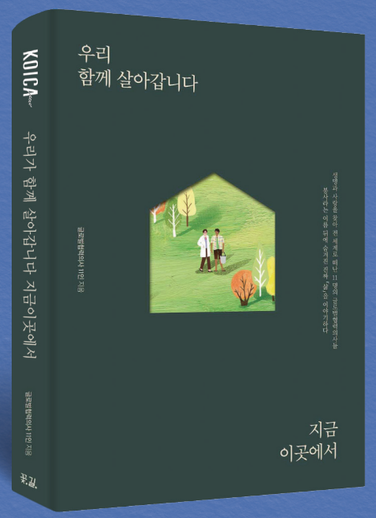
"코이카가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저는 큰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코이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로벌연수사업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된 건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에 귀감이 되는 일이지요.

코이카를 통해 연수를 받은 세계 각국의 동창회 동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힘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이러한 자신의 사례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기회가 있다면 참 좋은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전 세계의 수많은 보물들을 발굴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꼭 함께 하고 싶네요."

그가 걸어 나갈 여정의 시작을 함께한 코이카. 그가 이룬 지금의 큰 성과가 시작된 곳이 바로 한국이라 말한대도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그가 한국에 찾아와 심은 작은 씨앗이 싹을 틔워 지금의 성과를 낸 것처럼, 앞으로 이 싹이 무럭무럭 자라 커다란 나무가 되고 언젠가 짐바브웨를 넘어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코이카 글로벌협력의사 에세이 출간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살아갑니다 지금 이곳에서 글로벌협력의사 11인 지음 | 꽃길

코이카의 글로벌협력의사들이 최근 의미 있는 책을 펴냈다.
가나, 볼리비아, 네팔 등 해외 개발도상국에서 펼친 생생한 의료봉사 경험담을
<우리 함께 살아갑니다, 지금 이곳에서>에 담아낸 것이다.
험난한 여정 속에서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를 발견하고 생명 구원이라는 소임을 다하는
글로벌협력의사들, 그 따스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글 이경희 사진 코이카





코이카 글로벌협력의사, 세상으로 나아가다

한때 대한민국은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해외 원조는 당시 가난과 기아로 고통받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구원의 동아줄이었고 그러한 원조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주요한 축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코이카는 그때 우리가 받았던 도움의 손길을 다시 세상에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코이카의 '글로벌협력의사'는 그 선봉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함께 살아갑니다, 지금 이곳에서>(출판사 꽃길)는 바로 이 글로벌협력의사들의 경험담을 담은 책이다. 가나, 볼리비아, 네팔, 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피지, 에티오피아, 카메룬, 우간다 등 11개국에 파견된 코이카 글로벌협력의사들은 쉽지 않았던 현지 정착, 문화의 차이로 겪었던 어려움, 현지 의료 시스템에 적응해가며 어떻게 지역민들과 동화되어 갔는지 진솔하게 기록하면서 그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다

현재 네팔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철 글로벌협력의사는 **<우리 함께 살아갑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참여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었음을 고백했다.

"네팔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협력의사로 군의관 근무 대신 해외 근무를 했고, 10년이 지난 후 다시 글로벌협력의사로 네팔에 와 4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한때 제가 선진국의 좋은 기술을 네팔에 베풀어 주는 위치에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네팔 사람들도 우리와 피부색과 사용하는 언어만 다를 뿐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저의 이웃이었고, 제가 베풀어 준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고 있었습니다. 서로 데면데면하고 잘 몰랐던, 그러나 우리의 이웃이었던 네팔 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작은 기쁨을 책을 통해 독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시간들을 나누고 싶었다'라는 그의 말이 깊은 울림을 남긴다.

우리 함께 살아갑니다, 지금 이곳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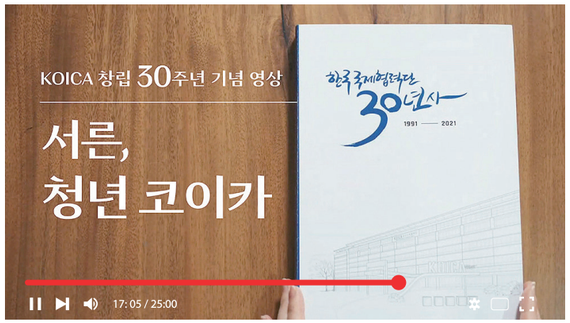
짬짬이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 글을 썼지만 현재 네팔에서 보내는 그의 시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초기에는 마스크 품절 사태로 인해 병원에서도 수술용 마스크가 없어서 천 마스크를 만들어 몇 달간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한·네 친선 병원(Korea-Nepal Friendship Hospital)은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 후 네팔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PCR 검사실을 설비해 확진 검사를 시작했고 제 전공인 외과진료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이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김병철 글로벌협력의사는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 코이카에서 PPE 세트,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 세정제 등을 코로나19 정부 지정 병원 4곳에 지원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병철 글로벌협력의사는 네팔에서 코로나19가 패닉에 가깝게 확산될 때도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인물이다. 이런 의료적 어려움을 겪는 네팔 사람들을 돕고자 이곳으로 왔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때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여 돌아간다면 글로벌협력의사로 한국을 떠나온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을 세상의 어려운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코이카 글로벌협력의사.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함께 사는 가치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KOICA 창립 30주년 기념 영상

서른, 청년 코이카의 이야기를 담다

한 톨의 씨앗이 울창한 숲이 되었다. 처음에는 불과 6개국의 해외사무소로 시작했던 코이카가 이제는 전 세계 44개 사무소에서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다. 코이카 소식지는 그간 코이카의 발자국을 좇아온 일기장이자 증인이었다. 지난 30년간 코이카와 함께한 소식지의 변화상에 대해 알아보자.

글 편집실

#1. 1990년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던 코이카?!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중동, 중남미 대륙까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며 기틀을 다지던 1990년대. 코이카 설립 계기와 당시의 생생한 상황, 코이카 1기 해외봉사단원 파견 당시 파푸아뉴기니 원주민과의 에피소드까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초창기 코이카의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한다.

#2. 2000년대, 우리의 강점을 살린 ODA

공동개발목표(MGDs) 발표와 함께 우리의 강점을 살린 목표를 설정하고 '세계 빈곤퇴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며 코이카의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이라크 내전 당시 복구지원을 위해 떠난 파견자가 이라크에 도착해 마주한 풍경과 빈곤퇴치를 위한 코이카의 노력과 감동 스토리가 펼쳐진다!

#3. 2000년 이후, 개발협력의 신흥강자 코이카

M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 성과를 인정받은 코이카! 2009년 11월 25일, OECD DAC에 가입한 24번째 회원국이 되는 영광을 얻었다. 그 후, ODA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을 진행하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된 기술 분야 역량강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외 KDRT(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네팔 구호파견, CTS(기술혁신프로그램) 파트너, 인권과 성평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ABC프로그램 등 지난 30년간 '글로벌 사회적 가치'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코이카와 함께한 많은 이들의 노력이 담긴 목소리를 들어본다.

#4. 함께 나눠온 30년, 함께 더해나갈 3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찾아온 포스트코로나 시대,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님의 메시지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코이카가 나아갈 방향을 미리 살펴본다. 첫 번째, 그린뉴딜 ODA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ODA를 어떻게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두 번째, 비대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디지털 전환. 세 번째, 앞서 말한 사업들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현지화. 이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 코이카는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준비합니다!

'서른, 청년 코이카' 창립 30주년 기념 영상 보러가기

사람 평화 번영 환경 파트너십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글로벌 선도적 개발협력기관으로 나아가고있는 코이카의 30년 역사를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코이카의 발자국을 좇아간 일기장



#1. 1990년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던 코이카?!



#2. 2000년대, 우리의 강점을 살린 ODA



#3. 2000년 이후, 개발협력의 신흥강자 코이카



#4. 함께 나눠온 30년, 함께 더해나갈 30년

홍보자료
홍보 2021-03-202

KOICA
한국국제협력단